

원 저

## 사상체질분류검사(QSCC II)의 재현성에 관한 연구

황덕상, 조정훈, 이창훈, 장준복, 이경섭

경희대학교 한방부인과교실

### A Study on Reproducibility of Responses to the Questionnaire for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II (QSCC II)

Deok-sang Hwang, Jung-Hoon Cho,  
Chang-Hoon Lee, Jun-Bock Jang, Kyung-Sub Lee

Department of Oriental Gynec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producibility of responses to the QSCC II.

**Methods:** Subjects have been tested by QSCC II for 2 or 3 successive years in Kangnam Korean Hospital at Kyunghee University from January 2002 to December 2005. We analyzed constitutions of the same subjects of each year tested.

**Results:** In the second year of QSCC II assessment, 333 of the total 584 subjects were classed as the same constitutions as in their first test. The reproducibility was thus 56.88%. After the third year of QSCC II, 45 of a total 81 subjects were in the same constitutions. The reproducibility was thus 55.56%.

**Conclusions:** We have found that the reproducibility of QSCC II is about 56%, so there is a severe limitation to diagnosis of constitution by QSCC II. Therefore, we must analyze constitutions through multiple objective methods.

**Key Words:** Sasang constitution, QSCC II, reproducibility, questionnaire

## 서 론

한의학에서 四象醫學은 이제마가 1894년 『東醫壽世保元』을 저술한 이후, 한국 한의학의 독자적인 분야로 연구 발전되어 왔다<sup>1)</sup>. 四象醫學은 인간의 체질적인 유형을 크게 太陽人,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으로 구분하고, 각 체질에 따른 生理, 病理, 治療 및 養生을 연구하여 만들어 낸 학문이다. 체질을 감별하여 거기에 따른 병증과 치료를 다르게 본다는 측면에서 변증위주의 한의학과 차이가 있다. 사상체질의학은 높은 치료효과를 보이면서도 체질감별에 있어서 객관성의 부재 때문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사상체질의학을 정확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체질감별의 객관화하고 재현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현재 체질감별에 外形, 心情, 病症의 세가지 범주로 연구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心情에 관한 연구는 1987년 사상변증내용설문조사지(I)

· 접수 : 2006년 8월 22일 · 논문심사 : 2006년 8월 23일  
· 채택 : 2006년 9월 5일  
· 교신저자 : 황덕상,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94-5 강남경희한방병원  
(Tel: 02-3457-9172, Fax: 02-3457-9111  
E-mail: soulhus@deamwiz.com)

을 시작으로 하여 QSCC I 을 거쳐서 QSCC II 로 진행되고 있다<sup>2,3)</sup>. 하지만, 기존의 연구 논문을 보면, 설문지 자체의 표준화, 타당성 및 체질별 응답 차이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sup>4,5,6)</sup>. 진단 설문지의 표준화에 있어서 재현성이라는 부분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에 저자는 같은 사람에게 같은 검사를 했을 때 그 결과도 정확하게 재현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강남경희한방병원 동서검진센터에 직장건강검진을 위해서 來院하여 QSCC II 검사를 매년 실시한 결과를 분석하여 그 검사 결과의 재현성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2002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직장건강검진을 위하여 강남경희한방병원 동서검진센터에 방문하여서 사상체질분류검사(QSCC II)를 실시한 1218 건 중에서 2년 이상 동일한 검사를 받은 사람 565 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여성 120명으로 평균 연령 44±7.4세 이었고 남성 445명으로 평균연령 45±6.3세이었다 (Table 1.).

#### 2. 연구방법

565명의 QSCC II의 검사 후 판별된 체질을 분석하여서, 체질판별이 2년간 일치한 사람, 3년간 일치한 사람을 비교하였고, 2년과 3년에 걸쳐 실시한 검사결과가 불일치한 사람의 체질유형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 결 과

#### 1. 2년간 연속으로 실시한 결과

1) 총 584명이 2회에 걸쳐서 QSCC II 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중에서 333명이 동일한 체질로 판명되어서 56.88%의 재현성을 보였고, 나머지 146명은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Table 2.).

#### 2) 불일치 유형분석

태음인이었던 사람이 소음인으로 판별된 사람이 46명으로 31.5%, 태음인이었던 사람이 소양인으로 판별된 사람이 47명으로 32.19%, 소음인이었던 사람이 소양인으로 판별된 사람이 36.30%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체질 별로 설문지 결과 상에 연관성이 있는 체질은 없이 고르게 차이를 나타냈다 (Table 3.).

#### 2. 3년간 연속으로 실시한 결과

1) 총 81명이 3회에 걸쳐서 QSCC II 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중에서 45명이 동일한 체질로 판별

Table 1. AgeDistribution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합계
남자	1	83	229	129	3	445
여자	1	36	53	25	5	120
합계	22	149	322	204	68	565

Table 2. Result of QSCC II over 2 years

	Number	Percentage (%)
Same result	338	56.88
Different result	146	43.12
Total	484	100

**Table 3.** Patterns of Difference of QSCCⅡ results

불일치 유형	Number	Percentage (%)
태음 - 소음	46	31.50
태음 - 소양	47	32.19
소음 - 소양	53	36.30
Total	146	100

**Table 4.** Result of QSCCⅡ over 3 years

	Number	Percentage(%)
Same result	45	55.56
Different result	36	44.44
Total	81	100

되어서 55.56%의 재현성을 보였고, 나머지 36명 중 35명은 2회는 동일하였지만 1회에서 차이를 나타냈고, 1명은 3회에 걸쳐 각각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Table 4.).

2) 불일치 유형분석

(1) 태음인으로 두 번 판별되고 소음인으로 판별된 사람이 9명으로 25.70%이었고, 소양인으로 판별된 사람이 8명으로 22.85%를 나타냈다.

(2) 소음인으로 두 번 판별되고 소양인으로 판별된 사람이 7명으로 20%이었고, 태음인으로 판별된 사람이 3명으로 8.57%를 나타냈다.

(3) 소양인으로 두 번 판별되고 소음인으로 판별된 사람이 3명으로 8.57%이었고, 태음인으로 판별된 사람이 5명 14.39%를 나타냈다 (Table 5.).

3. 성별, 연령 별 QSCCⅡ 결과 분석

여성은 총 120명 중에서 47명이 불일치 결과를 보여 60.83%의 체질판별 일치율을 보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명의 60대 중에서 1명, 25명의 50대 중에서 10명, 53명의 40대 중에서 21명, 36명의 30대 중에서 14명과 1명의 20대가 체질판별이 불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남성은 총 445명중에서 136명이 불일치 결과를 보여서 69.44%의 체질판별 일치율을 보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명의 60대 중에서 1명, 129명의 50대 중에서 41명, 228명의 40대 중에서 67명, 83명의 30대 중에서 26명과 1명의 20대가 체질판별이 불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Table 6.).

**Table 5.** Patterns of Difference of QSCCⅡ results

불일치 유형	Number	Percentage (%)
태음 - 태음 - 소음	9	25.71
태음 - 태음 - 소양	8	22.85
소음 - 소음 - 소양	7	20
소음 - 소음 - 태음	3	8.57
소양 - 소양 - 소음	3	8.57
소양 - 소양 - 태음	5	14.29
Total	35	100

Table 6. Results of QSCCII according to Age and Sex

	Age	Total	체질 불일치
Women	60대	5	1
	50대	25	10
	40대	53	21
	30대	36	14
	20대	1	1
Men	60대	3	1
	50대	129	41
	40대	228	67
	30대	83	26
	20대	1	1

### 고 찰

사상체질의학은 병의 진단과 치료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체질적 접근이 많이 시도되면서 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체질진단의 주관성과 정확성에 있어서 한계를 보이는 문제점이 있어서, 체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sup>7,8,9)</sup>. 그 중에서 임상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설문지를 이용하는 방법이다<sup>10)</sup>.

四象體質分類檢査 QSCC II는 사상체질진단을 위한 기초연구에서 인용된 『東醫壽世保元』과 『格致彙』상의 원문을 번역하고 문항을 선택하여 수차에 걸쳐 예비 연구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사상체질을 진단하는데 부적격한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된 문항과 반응 빈도율이 매우 낮은 문항(반응 빈도율이 10% 미만의 문항)을 분류해 제외하고 문항별로 원문과 대조하면서 문항을 가다듬고 무작위 척도와 동기왜곡척도를 첨가하여 순환식 문항배열법을 사용한 OX방식의 설문지로 구성되었다. 그 후 이것을 토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다음 각 체질척도에 속하는 문항을 제거한 다음 다시 『東醫壽世保元』 원문에는 없지만 통계적 검증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문항만을 선택하여

QSCC II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태음인 74.5%, 소양인 60.6%, 소음인 70.8%로 평균 정확판별을 70.08%의 감별정확도를 보이는 수준으로 개선되었다<sup>11)</sup>.

전체적인 문항을 세 개의 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신체적 요소, 심성적 요소, 병증을 묻는 문항으로 나눌 수 있다. 신체적 요소에 대한 평가는 정적 관찰방법인 體形氣像과 동적 관찰방법인 容貌詞氣에 대한 질문으로 나뉘고, 심성적 요소에 대한 평가는 다시 성질, 才幹, 恒心, 心慾 등에 대한 질문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병증에 대한 평가로는 體質病症과 體質素症에 대한 질문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체적 요소 8문항, 심성적 요소 80문항, 체질병증과 체질소증에 관한 24문항 및 동기왜곡 9문항으로 총 1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QSCC II는 지나치게 심리적 요소들을 묻는 질문이 많고, 원문을 원활하지 못하게 번역한 부분도 있어서 답변자가 대답하기에 애매모호하다는 단점이 있다.

QSCC II는 객관적인 체질감별 방법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진단방법으로 설문지에 대한 표준화 및 타당도 연구는 다각도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같은 사람이 1년의 기간의 두고 다시 동일한 검사를 통해서 그 결과의 재현성에 관한 연구는 진행

된 바가 없어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강남경희한방병원 동서검진센터를 방문하여 QSCCⅡ검사를 두 번이상 실시한 사람을 대상으로 재현성에 관해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동일한 사람이 2년간 연속으로 QSCCⅡ를 실시한 총 584명 중에서 333명이 동일한 체질로 판명되어서 56.88%의 재현성을 보였고, 나머지 146명은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그 결과들을 분석하면, 태음인이었던 사람이 소음인으로 판별된 사람이 46명으로 31.5%, 태음인이었던 사람이 소양인으로 판별된 사람이 47명으로 32.19%, 소음인이었던 사람이 소양인으로 판별된 사람이 36.30%로 나타나서 체질 별로 설문지 결과 상에 연관성이 있는 체질은 없이 고르게 차이를 나타냈다.

동일한 사람이 3년간 연속으로 QSCCⅡ를 실시한 총 81명 중에서 45명이 동일한 체질로 판명되어서 55.56%의 재현성을 보였고, 나머지 36명 중 35명은 2회는 동일하였지만 1회에서 차이를 나타냈고, 1명은 3회에 걸쳐 각각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태음인으로 두 번 판별되고 소음인으로 판별된 사람이 9명으로 25.70%이었고, 소양인으로 판별된 사람이 8명으로 22.85%를 나타냈다. 소음인으로 두 번 판별되고 소양인으로 판별된 사람이 7명으로 20%이었고, 태음인으로 판별된 사람이 3명으로 8.57%를 나타냈다. 소양인으로 두 번 판별되고 소음인으로 판별된 사람이 3명으로 8.57%이었고, 태음인으로 판별된 사람이 5명 14.39%를 나타냈다. 이 연구에서 보인 재현성은 대략 56%를 보여서 기존연구의 QSCCⅡ의 평균 감별정확도인 70.08%에 조금 못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설문 검사의 재현성 문제는 그 검사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보면, QSCCⅡ는 표준화와 타당도에 있어서 좀 장기간에 걸쳐서 많은 수의 설문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더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체질감별에 있어서

QSCCⅡ의 결과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신체적 요소와 병증에 대한 요소들도 함께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체질을 판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결론

2002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강남경희한방병원 동서검진센터에 래원하여 QSCCⅡ 검사를 실시한 1218건에 대해서 동일한 사람이 2년 이상 연속으로 검사를 실시한 경우, 판별된 체질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동일한 사람이 2년간 연속으로 QSCCⅡ를 실시한 총 584명 중에서 333명이 동일한 체질로 판명되어서 56.88%의 재현성을 보였고, 나머지 146명은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2. 체질 별로 설문지 결과 상에 연관성이 있는 체질은 없이 고르게 차이를 나타냈다.
3. 동일한 사람이 3년간 연속으로 QSCCⅡ를 실시한 총 81명 중에서 45명이 동일한 체질로 판명되어서 55.56%의 재현성을 보였고, 나머지 36명 중 35명은 2회는 동일하였지만 1회에서 차이를 나타냈고, 1명은 3회에 걸쳐 각각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 참고문헌

1. 전국한외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집문당, 1997:29-56.
2.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변증에 관한 소고, 대한한학회지. 1985;6(1):40-47.
3.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변증방법론 연구(제2보), 대한한학회지. 1987;8(1):146-160.
4. 김선호,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Ⅱ)의 표준화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6;8(1):187-246.
5. 이정찬,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Ⅱ)의 타당화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 1996;8(1):247-294
6. 박은경, 박성식. QSCCⅡ설문지 문항에서의 체질별 응답차이 비교분석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12(2):78-93
  7. 조황성 외. 체질진단의 객관화에 관한 연구-생화학 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사상체질의학회지. 1997;9(2):147-62.
  8. 김종열 외. 체질판별표를 이용한 체질판별의 객관화 방안. 사상체질의학회지. 1998;10(1):181-213.
  9. 신미란 외. CSL을 통한 음향특성과 사상체질간의 상관성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3;11(1):137-157.
  10. 박은경, 박성식. QSCCⅡ설문지 문항에서의 체질별 응답차이 비교분석 연구. 사상학회지. 2000;12(2):78-93
  11. 사상체질과. 사상체질과 임상편람. 2005:4-15